

드디어 불 밝힌 챔스필드... 기다렸다! 야구야

KIA 마지막 흥백전

선발·내외야수 1차 경쟁 마무리
이민우·임기영, 4·5 선발 시험 통과
김규성·김호령, 불방망이 활약

‘박하전문’ 완전체 실전 감각 관건
변시원·김현수·김현준 불펜 새얼굴
내일부터 KBO 팀간 연습경기

‘호랑이 군단’의 2020시즌을 밝히는 불이 켜졌다.
KIA타이거즈가 지난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흥백전 11차전을 치렀다.
지난 3월 20일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KIA의 마지막 자체 연습경기였다. 19일 야간훈련을 한

KIA는 20일 휴식 뒤 21일부터 KBO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또 이날 경기는 처음이자 마지막 야간 흥백전이었다. 오후 6시에 경기가 시작되면서 모처럼 챔피언스필드에 조명탑이 환하게 밝혀졌다.

조명탑을 켜고 시즌 분위기를 낸 KIA는 흥백전을 통한 1차 경쟁을 마무리했다.

◇선발 경쟁의 승자, 이민우·임기영
서재응 투수 코치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김기훈(좌완), 임기영(사이드암), 차명진·이민우·홍건희·홍상삼·김현수(이상 우완) 등 7명을 4·5선발 후보군으로 넣고 이들을 지켜봤다.

서재응 코치가 언급했던 승자의 조건은 “게임에서 제일 잘 던지는 선수, 안정적인 투수”였다. 캠프를 지나 흥백전에서는 이민우, 임기영, 홍상삼으로 후보가 좁혀졌다.

그리고 이민우가 초반 컨디션 난조를 딛고 지난 15일 네 번째 등판에서 6이닝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캠프 때의 위력을 다시 발휘하며, 선발 경쟁의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다. 4경

기 성적은 19이닝 14피안타(1피홈런) 5볼넷 16탈삼진 4실점, 평균자책점 1.90이었다.

이어 임기영이 4경기를 2.00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으면서 어필을 끝냈다. 임기영은 18이닝 동안 16피안타(1피홈런) 2볼넷 16탈삼진 8실점(4자책점)의 성적을 냈다.

브룩스는 지난 15일 등판에서 보크 등을 기록하면서 6이닝 4실점으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순조롭게 새 무대 적응을 끝냈다. 팔꿈치 통증으로 실전 등판이 늦어졌던 가봉은 12이닝 동안 9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아직은 무딘 모습이었다.

◇내외야 경쟁에 불붙인, 김규성·김호령
내야수 김규성과 외야수 김호령은 흥백전을 통해 내·외야에 경쟁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깜짝 스타’가 됐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윌리엄스 감독이 많은 기회를 주며 지켜본 ‘5년 차 예비역’ 김규성은 약점이었던 공격에서 먼저 눈길을 끌었다.

김규성은 마무리 문경찬을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방망이로 29타수 11안타 5타

점을 기록했다. 또 빠른 발을 활용해 2개의 2루타와 5개의 도루도 기록했다.

타격에서 자신감을 얻은 김규성은 이내 재치 있는 수비를 이어가며 박찬호를 긴장시켰다.

손가락 부상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김호령은 군 제대 후 처음 선 챔피언스필드 타석에서 2루타를 날렸다. 이어진 타석에서는 마무리 문경찬과의 승부에서 홈런포까지 날리며 등장과 함께 윌리엄스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전한 수비 실력으로 외야 중원 싸움에 불을 붙인 김호령은 에이스 양현종에게도 피홈런을 인거주는 등 흥백전 11경기에서 19타수 8안타, 0.412의 타율을 기록했다. 빠른 발로 3개의 2루타도 만들면서 0.842로 팀 내 가장 높은 장타율을 장식했다.

◇부상 변수에 고민 남은 불펜
기대 이상의 경쟁 속에 선발진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불펜진 구성은 부상으로 걸음이 더디다.

지난 시즌 KIA 마운드를 상징한 ‘박하전문’박준표·하준영·전상현·문경찬) 두 뒤늦게 완성

됐다. 마무리 문경찬과 전천후 박준표가 캠프에서부터 꾸준히 등판을 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했지만, 전상현과 하준영은 팔꿈치 통증으로 출격이 늦어졌다. 지난 5일 첫 흥백전에 나선 전상현은 5경기를 소화했다. 지난 15일 처음 경기를 치른 하준영은 18일까지 두 경기를 던졌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부상에서 벗어나면서 ‘박하전문’이 재구성됐지만, 실전 감각이 숙제다. 좌완 고민도 남았다. 하준영이 등장하기 전까지 KIA 불펜에 좌완은 이준영이 유일했다. 서재응 코치가 올 시즌 불펜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꼽은 임기준이 아직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 선발로 뛰었던 김기훈도 어깨 통증으로 이탈하면서 선발진에서도 좌완은 양현종이 유일하다.

다행히 서재응 코치가 KIA 불펜진에서 역할을 기대한 변시원이 새 팀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끝냈고, 김현수·김현준도 강렬한 구위로 어필하면서 새로운 불펜 옵션은 늘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FA 마지막해, 욕심 버렸지만 해결사는 내 역할”

‘타격의 중심’ 최형우

흥백전 3경기 뛰며 컨디션 점점
안타 개수 늘려가며 타격감 상승
지명타자 보직...민고 보는 공격카드

“찬스 때 타점 올리는 게 내 임무
후배들 믿고 최대한 기회 살릴 것”

발목 부상에서 벗어난 최형우가 2020시즌 시즌을 걸었다.

KIA타이거즈 최형우가 흥백전 세 경기를 통해서 위밍업을 끝냈다.

최형우는 지난 13일 캠프 귀국 후 처음 흥백전에 모습을 드러낸 뒤 15일과 18일까지 모두 세 경기를 뛰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첫 경기에서 안타 없이 삼진 하나만 기록한 최형우는 15일 여섯 타석 만에 안타를 만들었고, 18일에는 2루타 포함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오래 씌 것 같다”며 웃은 최형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최형우는 “준비는 앞으로도 더 해야 할 것 같

다. 감이 아직 안 올라왔다.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하려고 한다”며 “결과는 안타인데 내용이 안 좋았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타구들이었다. 타구 방향도 그렇고 타이밍도 그렇고. (오래) 안 봐서 공도 앞에서 사라지는 경향도 있다. 며칠 더 지나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막 연기, 발목 부상 등 돌발 변수는 있었지만 최형우는 차분하게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최형우는 “(캠프에서 페이스가 좋았지만) 나라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시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이 좋고 안 좋거나 중요하지 않았다”며 “시즌 시작하기 전에 다친 부분은 나아서 다행인 것 같다. 지금은 완전히 괜찮다”고 말했다.

최형우에게 올 시즌은 끝이자 시작이다. 지난 2017년 FA(자유계약)로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그에게 2020년은 KIA와 약속된 마지막 해이다. 변화의 시작점에 선 해이기도 하다.

좌익수 겸 4번 타자가 최형우에게 익숙한 타이들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3번 타자 겸 지명타자가 그의 이름이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부터 최형우는 대부분 3번 자리에 섰고, 지명타자로 다음 공격을 기다려왔다.

팀을 위해 마음을 비운 최형우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해 중반부터 (수비 나가는 게)

내 욕심인 것 같았다. 몸도 느껴지고, 내가 수비를 나간다고 해서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전에는 못해도 자신이 있어서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이제는 지명타자가 나올 것 같다. 야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지명타자로 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지명타자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최형우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있다.

최형우는 “요즘 루틴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땀을 내기 위해 하체 운동을 한다던가 안에서 운동을 한다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웃었다.

FA 마지막해이지만 여전히 그는 팀에서 가장 믿는 확실한 공격 카드다. 다시 FA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만큼 욕심이 나는 시즌일 수 있지만 최형우는 ‘욕심 없는 2020시즌’을 이야기한다.

그는 “이제는 내 야구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없다.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야구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만족을 하기 때문에 큰 욕심이 없다. 당장 여기서 끝나더라도 후회는 안 남을 것 같다”며 “욕심을 내서 더 하겠다. 해보고 싶다면 건 크게 없다. 이 팀에 오래 어울리면서 같이 순위를 더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욕심은 없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에 대한 욕심은 확실하다.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는 윌리엄스 감독과 팀을 위해서 찬스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형우의 목표다.

최형우는 “찬스 때 타점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다. 지난해에는 잘 못 했지만 것처럼 타점을 많이 올리는 게 감독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뒤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찬스를 살리는 게 내 임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챔피언스필드 밤하늘에 조명탑이 밝혀지면서 최형우의 실력도 커졌다. 하지만 ‘욕심’만으로는 시즌을 맞이할 수 없는 만큼 ‘무소유’의 마음으로 시즌을 기다릴 생각이다.

최형우는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간 경기 처음 하니까 뭔가 시합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 그런 건 있었던 것 같다”며 미리 느껴본 시즌 느낌을 전했다.

또 “팀 분위기는 괜찮다. 시합하고 싶은 선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몸을 만들고 가려는 선수도 있는데 이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욕심을 부린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야구 시작하면 다들 즐겁고 하겠지만 몸 추스르고 지금 이 나라에 딱히 (코로나19)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야구도 물론 좋지만 다들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